



회화: 《복으로 가득찬 남강(福满南疆)》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계열 이야기

하늘이 내린 홍복

명혜 정기 간행물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으면
역병이 물러가기에 평안할 수 있다

특간



목록

CONTENTS

서두 일문	1 생사 안위는 일념 사이다 — 중공 병독(우한 폐렴)이 기승을 부릴 때
인간 기적	2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4 “중공 병독(우한 폐렴) 환자” 구출기 6 조류독감 죽음에서 살아난 소년 8 그 해, 누나는 사스에 걸렸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10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나는 게가 되지 않을 거야 12 생사의 고비를 넘다
심신 정화	16 육식 점 주인 생사기 22 가없는 여성의 끝은 맑은 청류 26 누나는 나에게 보서를 주었다
집중 조명	30 파룬따파 흥전 세계
길성이 높이 비치다	32 연꽃 인연 35 노년을 편안히 누리다
행복한 가정	37 군의관인 아들이 승복했다
과학 최전선	39 신은 우리 곁에 있다
실시간 보도	40 우한 경찰: 아직도 우리를 생각하는 파룬궁에 감사합니다
진상 메시지	41 왜 삼퇴를 해야 하는가? 삼퇴는 하늘의 뜻이다!



왜 삼퇴를 해야 하는가? 삼퇴는 하늘의 뜻이다!

삼퇴란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중공은 죄가 산더미처럼 많아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한다. 우리는 중공 소선대, 공청단, 공산당에 가입할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 “당을 위해 평생을 이바지하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이것은 독 맹세를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오른손을 들고 독 맹세를 하는 “선서 의식”은 유일하게 공산당밖에 없다. 오직 공식적으로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 성명을 해야만 비로소 독 맹세를 제거할 수 있고 비로소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도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신을 위해 밝은 미래를 선택하시라.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 진심으로 “삼퇴”를 성명하면 본명, 가명, 애명으로도 유효하다. 조건이 되면 인터넷 봉쇄를 뚫고 해외 최대 중국 매체 《대기원 시보》

탈당 사이트에 공개 ‘삼퇴’ 성명을 하시고, 조건이 없으면 “삼퇴” 성명을 종이에 써서 붙여도 되는데 나중에 조건이 되면 다시 인터넷에 성명하면 된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다.

2004년 11월 19일 대기원의 시리즈 사설 《9평 공산당》을 발표한 이후, 중국인의 중공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삼퇴” 대조를 불러일으켰다. 중공이 정권을 잡은 70년 동안 각종의 운동을 통해 8,000여만 명의 중국 동포를 살해했으며, “진선인”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20여 년 간 박해했다. 중국인은 선과 악엔 옹보가 따른다는 것을 믿는데 중공이라는 사악한 조직을 벗어나야 하늘이 그것을 청산하고 별을 내릴 때 자신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 2020년 2월까지 대기원 탈당 홈페이지에 “삼퇴”를 성명한 인수는 이미 3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컴퓨터 버전 다운로드:

<https://git.io/fgp>

<https://git.io/umexe>

안탁 버전 다운로드:

<https://git.io/fgma>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주: 국산 브라우저로 이런 인터넷 주소가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니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인터넷 봉쇄 뚫고 명혜망 방문을 환영: www.minghui.org, 더 많은 진상을 료해하세요.

중공 병독(우한 폐렴)이 갑자기 터져 나온 이래 확진 환자든 사망 환자든 상관없이 급속히 늘고 있다. 사람들은 더는 중공이 공식 통보한 수자를 믿지 않고,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은 모두 파룬궁 수련생이 그들에게 알려준 자구 묵책을 믿고 있다. 현재 많은 해외 파룬궁 수련생이 우한 민중, 공안, 검찰, 법원 인원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들은 모두 단체로 진상을 듣고 감사를 표하며 중공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선택했다.

우한 경찰: 아직도 우리를 생각하는 파룬궁에 감사합니다

파룬궁 진상 전회를 우한의 한 파출소에 걸었더니 소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파룬궁 수련생이 말했다: 당신들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요. 도시 전부가 이미 봉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이 취한 봉쇄는 일부 도로를 모두 폐쇄하였으므로 자가용이 있어도 나갈 수 없이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외부의 지원도 들어올 수 없기에 우한은 거의 죽은 도시로 되었어요. 바깥은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데 무장 경찰이 아닌 무장한 군대입니다.”

파룬궁 수련생이 계속 말했다: “중공이 어디까지 봉쇄하겠는지 우리가 모르기에 이 시간 동안 당신들은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은 사악한 것이니 그것이 진선인을 두려워하지 당신들이 진선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들(경찰)을 이용해 파룬궁을 20년간 박해했는데 당신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아도 진실, 인내, 선양한 것이 좋지 않나요? 사람이 명청하지 않거나 그 자체가 사악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은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박해했지만, 공산당이 사악한 것을 마음속에서 알기를 바랍니다.”

파출소장은 마이크를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계속 듣고 있었고, 파룬궁 수련생은 이어 말했다: “당신들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믿기 바라는데 이것은 진짜 불(佛)이고 진짜 법(法)입니다. 당신이 내심으로부터 소리 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매일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고, 자기 전에도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평온해질 겁니다. 파룬궁이 20년의 박해를 견디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국가 정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당신들이 평안하기를, 공산당의 순장 품이 되지 않고 대리 죄 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파출소장은 또 말했다: “감사합니다!” 파룬궁 수련생은 말했다: “중공은 나쁜 짓을 많이 하여 하늘이 그것을 멸하려 하므로 당신들 몸에 사당의 기호가 있는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 가입했을 때, 악당은 당신에게 그것을 위해 평생을 분투한다고 하늘에 맹세하라고 시켰는데 그것은 목숨을 그것에 바친 것과 같으니 반드시 탈퇴를 선언하고 이 독맹세를 없애야 하며, 그러면 그것이 상관할 수 없고, 신불이 책임지기에 평안할 것입니다. 소장은 듣고 연거푸 두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했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소장은 “아직도 우리를 생각해 주어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생사 안위는 일념 사이다

—중공 병독(우한 폐렴)이 기승을 부릴 때

재난이 뜻밖에 닥쳤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을지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이 일념 사이 어쩌면 생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정할 것이다.

새해 시작부터 TV를 켜면 뉴스 보도 내용은 전부 중공 병독(우한 폐렴)인데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1월 23일 우한 도시 봉쇄가 점차 각지로 빤어 나가면서 역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인심이 흥흉하여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수십 개의 도시 봉쇄를 선언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인생역정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이다.

바이러스도 생명인데 더 나쁜 것일수록 독성이 강하므로 사람에게 미치는 위해가 더 크다. 사람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중공 병독(우한 폐렴)은 정말 역사가 세상에 내려왔듯이 사람들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많은 의료진도 감염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데 역병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구별이 없다.

그렇다면 재난 앞에서 뜻밖에 면한 사람이 있을까? 소식이 전하는데 의하면 설 전에 대만의 한 여성의 가족을 데리고 우한으로 유람을 떠나려 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의 집 강아지가 뜻밖에 그녀의 여권을 물어 뜯었는데 여성은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을 취소했다. 며칠이 지나 우한의 역병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여성은 비로소 자신과 가족은 한차례 재앙을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혜망에는 행운으로 재난을 탈출한 절체

절명의 실화가 많이 실려 있다. 그중 하나는 2004년 남아시아 큰 해일에서 30만 명 이상이 바다에 삼켜졌다. 하지만 한 파룬궁 수련생의 딸은 생사 고비에 큰 소리로 “구명 길언(救命吉言)”을 읽고 살아났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신이 도와준 듯 명암 속에 커다란 손을 내밀며 서서히 위험한 지경에 처한 생명을 받아 주는 모습에 사람으로서 깊은 감탄과 감사를 금할 수 없다.

큰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이 행운아이기를 바라는데 우리 역시 꼭 행운아가 될 것이다. 중의가 말하기를: 바른 기가 안에 있으면 사악이 어쩔 수 없다. 의학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저항력이 강하므로 우리 모두 바른 기를 마음에 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염라대왕의 심판과 부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또는 관념을 바꾸며 점차 진정한 좋은 사람: 진심, 착함, 관대함, 인내, 인의……사람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지러운 속세 속에서 진실을 탐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하기를 바란다. 선한 것과 진실의 쪽에 서서 올바른 길을 가면 하늘은 우리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호할 것이며 재난을 극복하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문/샤오샤(肖夏)

최근 나는 한차례 역병과 싸움에서 결국 내가 이겼다. 나는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운아가 되었다.

2020년 신정 다음날 오후, 나는 심양 시의 한 대형 마트로 쇼핑하러 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리라고는 생각지도 못 했다. 알고 보니 요 며칠 상품을 50% 할인한 것이었다. 봄비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생활용품을 사고 집에 돌아왔다.

누가 알았으랴, 그날 저녁 나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열이 나고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다. 생각지도 않게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 열이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내장이 다 부은 것 같고, 호흡이 곤란하고 기침이 심해져 피를 토할 것 같았다. 온몸이 힘없고 뼈까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두꺼운 솜이 불을 덮고 있는데 추워서 온몸이 떨렸다!

이때 중공 병독(우한 폐렴)이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는 파룬궁 수련생을 만났다.



는데 그들은 나에게 파룬궁의 진실을 알려주면서 마음속으로 “진선인”을 명기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또 위험에 닥쳤을 때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轮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 읽으라며——이 아홉 글자는 생명을 구하는 길언(吉言)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파룬궁 수련생의 파룬궁을 수련한 후 불치병이 다 나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질병의 고통을 참으며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읽었다. 혼수상태에 있지 않는 한 나는 읽고 열심히 묵념했다.

4일간 고열이 나고는 열이 나지 않고 기침만 하였다. 아직 기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꾸준히 집안일을 했다.

발병 과정에 나는 친인들이 걱정할까봐 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결국 2주일에 걸쳐서 나는 완전히 나았다.

내가 겪은 이 생사를 친척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모두 매우 감동하며 놀라고 기뻐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나는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고 읽었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인들도 모두 잘 믿었는데 위가 아픈 노인도 진지하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기 시작했다.

그렇다, 내가 파룬궁의 진실을 알았을 때부터 평소에 일함에 되도록 남을 생각

지금 사람들은 “신(神)” “불(佛)”하면 무시하며 “미신”이라고 하는데, “신” “불”은 사실 진실한 존재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신주(神州)”라 불리었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신전 문화이다.

서양의 과학 거장들도 신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400년 전 천문학자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태양 흑점, 목성의 위성과 달의 산맥을 발견한 후 기뻐서 미친 듯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놀라서 명했다. 나는 이런 위대하고 몇 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적을 발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게 해 주신 신께 무한히 감사하다.

200여 년 전, 고전 역학의 대가이자 대과학자인 뉴턴은 고집 센 무신론자를 접대하고 스스로 만든 태양계 성체 운행 의지를 감상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손님은 그 운행의 정확함에 경탄하며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나요?”라고 물었다.

뉴턴은 “자발적으로 무작위로 생겨난 것입니다.”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무신론자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자 뉴턴은 반문했다. “당신은 작은 성운기가 모두 자발적으로, 무작위로, 그리고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 왜 이 거대한 우주 및 모든 것이 무작위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우기는가요?”

지난 세기 현대 과학의 정상에 선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주가 얼마나 많은 별을 가지고 있는가? 각각의 별은 어떤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데 이러한 운행을 배치한 힘은 바로 신이다! 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내가 평생 많은 이익을 얻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과학 연구에서 중대한 난제를 만나도 실망하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답안은 반드시 찾을 것이고, 신은 확실히 측량하기 어렵지만 언제나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 한다. 당신은 조예가 깊은 과학자 중에서 종교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종교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보면 믿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인간의 감각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파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모르며, 공기 중에는 다양한 생명에 필요한 것과 해로운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모르며, 심지어 지진,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동물은 예감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는가?

저의 남편은 성격이 솔직하고 성질이 사나운데 단정한 일이라면 누구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그는 진지하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었다. 나는 그에게 파룬궁 진상 정기 간행물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다 보고 나서 같은 병실의 환자에게 전해 주면서 만병통치를 할 수 있으니 당신들도 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정말 신기한 것은 남편은 3일만 읽었는데 고열이 내렸다. 또 며칠이 지났는데, 의사는 우리를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 그의 이 병은 이러하니 집에 가서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어디 가서 놀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너무 많은 유감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 뜻은 분명했는바 병원은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밖으로 내쫓는 것이다.

남편은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하며 말했다: “나의 병은 이틀 전에 나았는데 여기에 돈만 팔며 입원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는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렇게 남편의 병이 나았다.

막내 시누이는 오빠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그를 뵈러 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한바탕 않았다. 막내 시누이는 병이 나아서 또 오빠 보러 왔다가 오빠가 다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남편은 그녀에게: “너도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렴, 이 파룬따

파는 너무 신기하다.”고 말했다.

막내 시누이가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모두 갔다. 큰아들도 돌아왔다. 수십 명의 사람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척은 모두 남편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물었다? 남편은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고 나았다. 파룬따파는 정말 좋다! 의사가 나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 것을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너희는 모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거라.” 막내 시누이도 이어 말했다: “나도 지금 매일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읽어요.”

큰이들은 동창들을 초대한 모임에 우리 부부도 불렀다. 아들은 모임에서: “이전에 나도 파룬궁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나의 부친의 병을 통해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 보세요, 나의 부친의 기력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의 필름을 내가 보았는데 정말 암 말기라 병원도 치료할 수 없었지만, 그이는 파룬궁을 믿고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읽고 이 병이 나았으니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에는 이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지만, 파룬궁이 해냈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 역시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이 진짜 존재합니다. 파룬궁의 과학성은 절대적으로 현대 과학의 인식을 초과한 것이니 나는 승복합니다!”라고 말했다. 福

하며 “진, 선, 인”에 따라 행하고 또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간청하여 “삼퇴”) 한 후 이제는 질병과 역병 등 재난이 두렵지 않았다. 사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서민들은 모두 역병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재앙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

하려 인간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불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신불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모두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저승사자의 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단 하나의 소원인데 그것은 재난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福



중공 병독(우한 폐렴)의 은밀과 확실: 국제 최신 소식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하버드 대학에서 15년간 유행병 학자로 교직을 맡았던 에릭 피그던 박사는 트위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의 RO 수치는 의외로 3.8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열핵 등급의 역병으로 —나의 직업 생활에서 그렇게 맹렬한 수치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피그던 박사는 중공의 통계 수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공 병독(우한 폐렴)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중공 위생 보건위원회에서 2월 13일 역병으로 이미 1364명이 사망하고 역병에 감염된 사람 수는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북경, 상해는 도시 봉쇄를 선포했다. 미국 최대 중국인 매체 《대기원 시보》는 진실한 감염과 사망 통계 수치는 중공이 발표한 수치를 훨씬 초월해, 우한 시내 지역에서만 매일 2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는데 중공이 발표 수자의 10배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중공 우한시장은 TV 인터뷰에서 우한 도시 봉쇄에 앞서 이미 5백만 명의 민중이 다른 방식으로 우한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민항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신종 관상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2일 이내에 우한에서 전국 각지로 비행한 사람의 수는: 해남으로 7, 56만 여명, 북경으로 5, 9만 명, 상해 7만 명, 광동 8, 6만 명, 성도 4, 7만, 중경 2, 2만 명이다. 이 중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이제 신관 바이러스가 26개국으로 확산하였고, 중국 관영 보도의 일관한 정보의 축소와 실제 상황은 폐로 인해 세계 각국과 대륙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방비하기에 어려움이 생겼다.

위급한 때에 우리는 귀하가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천재지변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드립니다. 福

“중공 병독(우한 폐렴) 환자” 구출기



구정 전 장씨는 우한에 갔는데 우한에 이르러서야 그곳의 역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며칠 안 되어 도시를 봉쇄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여기 갇혀 있어도 죽고, 뛰쳐나가는 것도 죽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장씨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변의 한 도시로 도망쳤다. 방금 도착하자 거기도 도시를 봉쇄할 줄은 몰랐다! 그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여 다른 도시로 도망갔고, 또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국 목숨을 건졌다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중공 병독(우한 폐렴)의 전염성을 알고 있어 당장 가족한테 가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먼저 스스로 격리하자고 생각했다. 14일 후, 발병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이다! 14일째 되는 날 갑자기 고열과 기침, 가슴의 통증 등 “중공 병독(우한 폐렴)” 증세가 나타나 쉽사리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장씨가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병원에 구조를 요청하자 병원은 그를 데리러 올 수 없다고 답하면서 전염병 병원과 연락하라고 했다. 장씨는 아픔을 참아가며 전염병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차를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장씨는 다시는 어느 병원도 그를 구하려 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침대에 누운 장씨는 완전히 절망했다: 천신만고 끝에 우한 역병 지역에서 도망쳐 왔는데, 지금은 하늘도 땅도 무심하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네……장씨는 고통과 실망 속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7살 된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장씨는 아들에게 “아빠가 병에 걸렸는데 아마도 곧 안될 것 같구나……”라고 말했다.

장씨의 아내와 장모는 그가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급해졌다. 하지만 장씨는 가족에게 전염될까 봐 그들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도 장씨에게 올 수 없었다. 이때, 아들이 전화에서 끊임 없이 그에게 말했다: “아빠, 반드시 ‘파룬

군의관인 아들이 승복했다

문/팅화(婷華)

도 없다.” 큰아들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아버지더러 어머니를 따라 연공 하시라고 하세요.”라고 말했다.

평소에 소보다 고집이 센 남편은 내가 그에게 “파룬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라고 했지만, 그는 읽지 않고 경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암 말기인데 지금 오직 나의 사부님께서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는 믿지 못하면서 말했다: “암이라니? 나는 몸이 멀쩡하고 또 무슨 부도덕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병에 걸릴 수 있나요! 나는 지금 엄중이 있으니 이틀만 약을 먹으면 돼요.” 나는 말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 큰아들이 지금 집으로 오고 있어요. 더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당신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지 20년 가까이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지 20년 가까이

의 엄마가 걸린 병은 어떤 병인데 파룬궁을 수련하고 아무렇지도 않지 않나요?” 남편은 큰아들이 그로 인해 집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게다가 일가족의 표정을 보고 믿었는데 이것이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잠깐 있더니 고개를 숙이고 성심성의로 말했다: “읽겠어요!”

큰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가 열심히 엄마를 따라 파룬궁을 수련하세요. 이 병은……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아빠가 엄마를 따라 연공은 계속하세요.”



우리 집은 삼대가 한집안에서 생활하는 대가족인데 평안하고 순조롭고 즐거웠다. 하지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6년 3월 9일, 남편이 갑자기 고열이 났다. 병원에 보내서 검사한 결과 암으로 확진했는데 종양 두 개가 폐에 각각 하나씩 자란 데다 폐암 말기라고 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많은 사람이 들고 넋을 잃고 명해졌다. 아주 행복하던 가족들은 울기 시작했다. 막내아들은 “이 일은 우리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고 딸은 “빨리 큰오빠에게 전화해서 어찌해야 할지 물어봅시다!?”라고 말했다.

내 큰아들은 군의관인데 막내아들이 울면서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큰아들은 정말 이 병이면 아무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전화를 받아 쥐고 말했다: “네가 말해보아라, 너의 아빠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하게 할 거니, 나와 연공을 한다면 무사할 것이니 너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부님외에는 아무

이때가 별써 11월이었다. 나는 온몸이 아프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몸은 여위어 뼈만 앙상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지탱하며 북경으로 갔다.

북경 301 병원에 입원해 추가 진단을 받으면 매일 혈액을 뽑아 검사를 받았는데 2주 뒤 청도 병원에서 확진 받은 것과 같은 “건조 증후군” 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과의 황 주임은 “이 병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나는 국제 학술 교류에 자주 참여하는데 이런 병은 현재 해결 방법이 없으며 약품도 연구해 내지 못했기에 당신은 집에 가서 기공을 연마하며 신체의 면역기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서서히 항병력을 키우세요.”라고 말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자고 나는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는 나에게 말했다: 두 큰 병원의 전문가 주임 모두 당신에게 기공을 연마해 보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파룬궁을 수련할 줄밖에 모르니 나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해요. 오로지 이 길뿐인데 파룬따파 사부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2004년 정월 초이튿날 나는 또 고열이 나며 “섬유화 폐렴”이 재발했는데 호흡이 매우 힘들어 웃도 못 입고, 숨을 쉬기 힘들어 침대도 못 내려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누워 산소를 들이마시며 매일 리홍쯔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는데 대법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기적이 정말 나타났고, 몇 달 후, 나는 병이 다 나았다. 나는 청도에 가서 CT 필름을 쑤씨 주임에게 보여주었는데 주임은 필름을 보고 놀라 말했다: “어디서 약을 샀나요? 어찌하여 나았나요?”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나더러 기공을 연마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았어요.”

쑤씨 주임은 “집에 가서 꾸준히 수련하고 멈추지 말아요. 너무 신기합니다!”고 말했다.

나는 또 내가 병이 나은 원인을 병실의 모든 환자에게 알려주고 당신들이 돌아가 파룬궁을 연마하며, 파룬궁만이 우리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6년이 지났고, 나는 올해 80살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몸은 아주 좋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만년을 누리고 있다. 나는 신이 나의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고 믿는다.

예전에는 공산당의 교육 선전으로 나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난이 닥쳐 불치 병에 걸렸을 때, 알았다. 인간은 하늘을 이길 수 없고 자기 몸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늘을 이길 수 있겠는가?

파룬따파가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었고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에게 심신이 건강한 노년을 주었다. 우리 가족은 파룬따파에 감사드리며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福

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읽으세요! 꼭 읽어야 해요!”

아들의 간절한 당부를 듣고 장씨는 문득 파룬따파가 생각났다.

원래 장씨의 아내, 아들, 장모 모두 파룬따파 수련자였다. 몇 년 전 장씨는 파룬궁을 접촉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체계성 홍반낭창”을 앓았고 오래 치료해도 낫지 않아 시험해 보려는 마음으로 《전법륜》(파룬궁 주요 저작)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병이 나았고 “삼퇴”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도 했다. 그러나 장씨는 어려서부터 공산당 무신론의 세뇌를 받은 것이 깊어서 진심으로 파룬따파를 믿은 것이 아니며 때로는 심지어 파룬따파에 대한 불경스러운 말도 하며 또 그의 “삼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생명이 막다른 지경에 처했을 때, 아들의 간절한 외침에 장씨가 파룬따파

를 생각하게 했다: 오늘날,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고 수많은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재난 앞에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轮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는 이 아홉 글자를 읽으면 모두 사람을 구하는 작용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목숨을 구하는 묵책이다! 그는 희망을 보았고, 위급한 때에, 그는 한 번 또 한 번 진심으로 경의로 읽기 시작했다……

다음날, 가족들은 장씨의 전화를 받았는데 고열이 이미 내렸고 온몸에 땀이 줄줄 흘렀으며 아직은 허약하지만, 더는 큰 지장이 없으니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친지와 친구들은 모두 감동해 마지않고, 아이의 외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씨는 완쾌되었다. 이번 생사의 재난을 겪고 나서, 그는 철저히 파룬따파를 믿었다: 파룬따파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아홉 글자 길언(九字吉言)은 정말 목숨을 살려주는 진언(真言)이다. 福

계시판

사나운 역병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묵책

중국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차라리 있다고 믿을지 인정 없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지금 심각한 중공 병독(우한 폐렴)을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번 해보시라.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고 파룬궁 수련생이 알려준 목숨을 지키는 방법: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轮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真善忍好)”를 읽어보시면 당신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으시리라 믿는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목숨을 부지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福



法轮大法好
真善忍好

真言
字

조류독감 죽음에서 살아난 소년

문/장옌(江燕)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소년의 아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법을 수련하고 불치병이 완쾌

나는 간호사인데 아주 젊었을 때 마른버짐에 걸렸다. 마른버짐은 세계 의학계에서 제2의 암으로 분류된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심한 시달림을 받는다. 가려움이 심해서 마음을 도려내는 느낌을 형용할 수 없다. 내가 일하는 병원은 의료장비가 매우 선진적이지만, 이 병에 대해서는 무력했다. 주임은 나에게: 약은 독이 3이라며 치료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며 어느 날 특효 약이 개발되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념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민간 처방을 사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수십 년을 찾았다.

1999년 3월, 나는 아이와 함께 파룬파를 수련하였다. 이날 가부좌하고 정공을 할 때, 아이는 다른 공간의 풍경을 보

았다: 금빛 찬란한 궁전, 구곡교에서 춤추는 선녀. 나도 다른 공간의 광경을 보았는데 정말 환상적이었다. 나의 마른버짐이다 나았다. 나는 파룬따파는 더없이 귀중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오묘한 법을 얻어 새로 태어나다

2008년 3월, 우리 병원에 남경에서 환자가 왔는데 22살 남자아이로 조류독감 진단을 받았다. 그때 남경에서는 이미 이병으로 3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비상 경계하고 그를 엄하게 격리함과 아울러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사들을 보내 치료를 맡겼다. 그러나 병세가 너무 빨리 심해지면서 환자는 바로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병원은 결국 위급 통지서를 내렸다. 소년의 부모와 두 누나는 절망으로 매우 슬프게 울었는데 집에는 아들이 하나뿐이

다온이는 전에 어머니와 할 말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두 사람은 온종일 소곤 소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분 좋게 파룬따파 수련의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0년이 넘도록 다온은 생부에게 앙심을 품어왔는데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다온이는 처음으로 주동적으로 아버지를 뵈러 갔다. 다온이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아빠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온이는 뼈저리게 느꼈다: 파룬궁 수련자라면 건강의 기적은 초보적 표현일 뿐이고 끊임없이 심성을 높여 사상 경지가 승화되는 것이야말로 더 값진 수학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다. 생명, 우주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갈수록 깊어질 때, 자비심은 저절로 생겨나고, 그런 느낌은 정말 아름답다. 당신이 “진선인” 가치관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할 때, 더는 명예와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더는 질투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나 호의가 가득하기에 마음이 매우 충실했던 것인데 이것은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온이는 죽음과 절망에 직면한 비참한 세계로부터 걸어 나왔는데 “진선인” 메시지가 담긴 작은 연꽃 덕분이다. 신성하고 순결한 연꽃 인연으로 다온이는 파룬궁 수련에 들어설 기회가 있게 되었고, 그들 모녀에게 생명의 기적을 가져왔다. 다온은

“이것은 나의 복이고 행운입니다!”라고 한없이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노년을 편안히 누리다

문/서우이(壽益)

나는 원래 군 퇴역 출신 간부로 10여 년간 지방에서 지도자로 일했다. 2001년에 은퇴했는데 마음속으로: 이번엔 안일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대로 안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2003년 7월, 나는 갑자기 온몸이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했지만 치료할수록 더 심해져 고열이 가라앉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청도 시립병원에 가서 확진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는 열이 계속 나고 체온이 38~39도까지 올라가 병원에서는 확진할 수 없었고 약도 사용할 수 없었다. 나는 정신을 잃고 2주 동안 버티고 나서 “건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주 동안의 고열로 폐가 타 버렸는데 CT 검사에서 “섬유화 폐렴”으로 사스 후기 증상이라고 확진 받았다. 나는 호흡이 곤란했는데 옛 병이 가지 않고 또 새로운 병을 더했다.

사스 후기 증상이 확진되자 병원 전문가인 쑤씨 주임은 나에게: “당신의 이 병의 이름은 이것뿐인데 세계적으로 아직 돌파하지 못해 약물치료가 없으니 돌아가서 기공을 연마하며 면역기능을 늘려 천천히 회복하세요.”라고 말했다. 한마디 말에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할 수 없이 두 달 동안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단념하지 않고 나에게 북경 301 병원에 가서 다시 확진하자고 상의했다.



재앙에 닥쳐도 상서롭게 변한다

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이 괴로웠다.

나는 조용히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신을 믿으십니까?” 소년의 아버지는 “믿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따파의 진상을 말해주고 그들에게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고 읽으며 이것은 목숨을 구하는 길언(吉言)이니 성심으로 읽으면 기적이 나타나 신불의 보우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호신부를 소년의 베개 밑에 넣어 주었다. 소년의 가족은 나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소년을 향해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고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었다. 기적은 정말 나타났다! 다음날 소년은 깨어났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소년의 아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소년은 일반 병실로 옮겨갔고, 나는 그를 보러 갔는데 소년의 아버지는 나를 가리키며, 감격하여 그의 아내, 아들, 딸에게 말했다: 바로 저 여성의 우리 가족이 구원 받을 비법을 주었어요. 나는 또 소년의 아버지에게 삼퇴(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를 해주고 그들에게 계속 읽으라고 했다. 얼마 되지 않아 소년은 회복되어 퇴원했는데 10여만 위안의 의약비도 절약했다. 사실, 많은 경우 생사는 일념 사이다——“믿음”과 “믿지 않는”이 일념의 선택에 따라 어쩌면 생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정할 것이다. 福

아홉 글자 길언(吉言)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 이 아홉 글자를 말한다. 왜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재앙에 닥쳐도 상서롭게 되는가? 그것은 파룬따파는 상승의 불가 대법으로서 아홉 글자 길언은 우주의 순수하고 올바른 에너지를 갖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에게 선의적인 계발과 지혜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룬따파가 중공에게 모독, 박해당할 때, 당신이 시비를 똑똑히 구별하고, 선양함을 지지하는 이 소중한 일념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의 생각을 천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었기에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가 무척 많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기에 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은 “길언”이라 한다. 대법을 선의로 대하는 일념에 하늘이 행복과 평안을 내린다. 福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는데 피로, 불면증, 통증, 그리고 방사능 화학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점차 줄어들었어요.”

신속히 다은이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식욕은 점점 좋아지고, 잠을 푹 자는데, 이것은 여러 해 동안 없었던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망과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는데 다은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 기쁜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불치병이 완쾌되어 새로 태어나다

다은이는 매일 《전법륜》을 열독하고 파룬궁의 5조 공법을 연공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진선인”的 표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엄격히 요구했다. 5개월 후, 그녀는 병원에 가서 재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그녀를 매우 놀라게 했다: 각종 혈액의 생화학 지표는 정상으로 안정되었고, 위에 통증이 없고, 소화계통이 정상이고, 암세

포가 보이지 않았고 방사능, 화학 요법으로 인한 후유증은 모두 사라졌다.

이 결과는 다은이를 감동하게 했는데 이로부터 그녀는 더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다은이 얼굴은 붉고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곱고 부드러워 고급스럽고 우아한 풍채가 넘쳤는데 아플 때와는 그야말로 전혀 딴 사람 같았다. 친구, 동료와 이웃 등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은 그녀가 점점 젊어지고 점점 예쁘다고 내심 칭찬했다.

파룬따파를 수려하고 환골탈태하다

다은이 몸에서 일어난 기적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도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여러 해 동안 괴롭혔던 류머티즘, 위통과 결장암 같은 만성질환도 사라졌고 심지어 30년이 넘는 불면증도 없어졌다. 이전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삶에 대해 원한을 품었으나, 지금은 매우 낙관적으로 변해 더는 불평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해, 누나는 사스에 걸렸다.....

문/홍취(洪旭)

예기치 않게 죽음이 닥쳤을 때, 누나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사스에 걸려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2007년 초겨울부터 우리 누나는 헛기침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누나를 시급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즉시 입원하라고 했다. 주임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건 전염되지 않는 SARS인데 폐는 이미 솜처럼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걱정되어 또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전문의에게 보여주었다. 이 의사는 물었다: “이 사람은 이미 없는 거죠?” 그 물음의 뜻은 이미 죽은 거 아닌가?

이 말을 듣고서야 나는 누나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당시 시급 병원은 아직 호르몬 치료를 갖추지 못하여 우리에게 빨리 천진에 가서 치료하라고 했다.

나는 급히 누나를 비행기로 천진 종합병원으로 갔다. 원장님의 직접 만나 이병은 호르몬 치료밖에 안 되지만,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성공률이 50%에 불과해 희망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기왕 온 바에야 여기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누나는 그때 정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았는데 매우 우울하여 하루에 한마디도 안 했다. 링거로 직접 120mg까지 주입하여 약의 양이 너무 많아 호르몬의 부작용이 누나의 몸에서 나타났다: 인형 얼굴, 물소 등, 입맛이 몹시 당겼다. 몸무게는 108kg에서 160kg으로 빠르게 불어나 비대해져서 온 사람이 달라졌다. 매일 링거를 너무 많이 맞아서 수분이 빠지지 않아 허벅지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부작용은 그녀의 심장을 심하게 자극하여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 누나는 매우 고통스러웠다. 내 마음도 찢어지듯이 아팠다.

중태 통지서 9장

병원에서는 9장의 중태 통지서를 연속으로 내렸다. 주임은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을 수 없어,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나는 꾸꾸하게 살아야 한다.

그 후 1년 내내, 그녀는 항상 지친 몸을 이끌고 하노이의 큰 병원을 오가며 그녀는 부득이 방화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강한 부작용으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체중이 줄고 전신이 쓰시고 또 심한 불면증이 생겼다. 의사는 그녀에게 그녀의 여생을 방사능 치료의 부작용 속에서 살 것이라고 충고했다.

병고의 시달림과 정신적 심한 스트레스는 홍다은에게 여러 번 치료를 포기하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녀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하였다 — 더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그

러나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 눈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또 자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강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고통과 절망, 아무리해도 어쩔 수 없을 때, 간단해 보이지만 또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연꽃 한 송이가 마음을 되살리다

2016년 초, 홍다은의 어머니가 외출하셨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작은 인공으로 만든 연꽃을 선물하였는데 아래에는 정밀한 노란색 술이 있고, 가운데 있는 작은 표지판에는 “진, 선, 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이 정밀한 연꽃을 다은에게 보여주었더니 다은이는 매우 좋아했고 편안한 좋은 기운이 느껴지면서 “진선인” 세 글자도 단번에 그녀의 마음속에 박혔다.

그녀는 작은 연꽃 장식품 위에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에 조용히 입력했더니 명혜망 사이트가 열렸다. 여기의 정보를 다은이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다. 자세히 본 후, 그녀를 놀라게 했으며 다은에게 강렬한 탐구의 욕구가 생겼다. 그녀는 《전법륜》 책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 열독하기 시작했다.

《전법륜》을 읽고 인생의 참뜻을 알다

《전법륜》 제4장 내용을 읽었을 때, 다은이는 마치 마음의 버튼 하나가 열린 듯이 그녀는 인생의 모든 불행한 답안을 찾았다. 원래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생생세세의 윤회 속에서 빚어낸 업

력이야말로 인생의 고난을 초래한 것이다. 여기까지 본 다은이 마음속의 모든 고통, 불만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멩이가 내려지는 듯이 다은이는 너무 설렜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은이는 서점에 가서 인쇄판 베트남 문 《전법륜》을 사서 더욱 집중하여 열독했다. 이번엔 그녀는 더 많이 체득했다며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몸에 많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온몸에 열이 나타가도 추워 나고, 위가 아프다가 또 설사하기 시작하는데……책에서 묘사한 것과 같았어요. 나는 이것은 사부님께서 나에게 몸을 청리해주시고, 역시 병업을 없애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후, 체력이



연꽃 인연

홍다은 (Doan Thi Hong) 여사는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 북강 라디오 텔레비전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

카메라에 비친 홍다은은 청진하고 우아하며 단정하고 들파하여 성숙한 여성의 기질과 아름다움이 있어 TV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

화면에 비친 아름다운 풍모의 홍다은에게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 6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데 다른 여자를 위해 어머니를 자주 폭행하다가 결국 부모가 이혼했다. 하지만 그 한 장면 한 장면의 비참한 광경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불행한 어린 시절과 형편없는 가정환경이 그녀를 괴벽의 개성으로 만들었는데 아무 구속 없이 자유자재로 노니는 것을 좋아하고 무지막지하게 우쭐거리는 이런 것이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겼다.

불치병에 걸려 생존의 용기를 잃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이 안정된 후, 그녀는 선불리 그녀를 추구하는 남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게 되었지만, 아주 빨리 결혼은 파경을 맞았는데 이혼할 때 아들은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녀 혼자서



키우게 되었다. 2014년 초 전 남편은 희귀한 종류의 암으로 사망했다. 얼마 후, 그녀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또 자궁암이 발견됐다. 이 소식을 듣고 그녀는 당시에 하늘과 땅이 빙빙 돌아치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애야, 엄마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아들도 그녀를 꼭 껴안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가 나를 키우겠나요?”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으며 그녀는 어려운 선택에 빠졌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누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겠는가? 누가 아들을 키우겠는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강한 생존 욕구가 그녀로 하여금 죽으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에게 말했다. 난 죽

말했다.

누나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는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이 붓고,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온 집안 식구가 모두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힘든 나날을 보냈다. 병원에서 반년을 질질 끌다가 돈이 없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안 되어서 2007년 6월 초에 내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나의 “야” 하는 소리만 듣고 얼른 방으로 달려갔더니 누나가 눈을 질끈 감고 입에 피가 섞인 흰 거품을 물고 인사불성이 된 것을 보았다. 내가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는데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아 120으로 전화를 해야만 했다. 도로에 차가 막혀서 운전사가 반 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거라고 말했는데 긴박한 가운데 나는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고 읽었다. 잠시 후 누나는 눈을 떴다. 가장 중요한 때에, 나는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읽었는데 누나가 감응을 받은 것 같아 드디어 위험에서 벗어났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측정기로 같은 검사를 거쳐 의사는 전과 똑같은 말을 했다. 나와 누나는 병원에서 누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막다른 골목에 빠진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나와 누나는 집에 가서 파룬궁을 수련하자고 다짐했다.

대법을 수련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다

나와 누나는 매일 《전법륜》을 보고, 파룬궁의 5조 공법을 연공 하며 “진선인”

의 요구에 따라 행했는데 아주 빠르게 파룬따파의 신기함이 누나의 몸에서 나타났다.

누나는 침상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고, 혼자 걸을 수 있었다. 그녀의 성격도 좋았지 않고, 얼굴에 웃음이 띠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존중하는 것도 배웠다. 누나는 몸에서 정신까지 온통 사람이 변한 것 같다. 우리집에 온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이 대단하고, 당신 누나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의학적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다.

병원으로부터 9 장의 중태 통지서를 연속으로 받은 적이 있는 누나가 회복되었다! 그녀는 매일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행복과 즐거움에 잠겨있다. 우리 가족은 마음속으로 리홍쯔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파룬따파 은혜에 감사드린다. 파룬따파가 누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

누나는 사람만 만나면 그들에게 파룬궁의 진실과 자신이 사스에 걸렸다가 완쾌된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모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기억하고, 빨리 “삼퇴” 하여 평안을 지키어 자신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선택하라고 알려주었다. 생사 안위의 고비에서 나와 누나는 파룬따파 수련을 선택하여 누나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우리 가족과 친지 친구들은 모두: 왜서 파룬따파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질 수 있고, 중공이 파룬궁을 20년간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억만인 이 아직도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친구여, 만약 보물책 《전법륜》을 한 번 읽어 보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잘 알 것이며 동시에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나는 게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시나요? “암”의 라틴어는 “게” 인데 제멋대로 날뛰는 걸 의미합니다.....

어젯밤, 나는 국내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병세를 물어보았는데 엄마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다: 방금 마친 CT 검사에서 아버지의 폐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나쁜 세포들이 모두 체내에 흡수되거나 전환된 것 같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얼마 전, 아빠가 폐암에 걸렸는데 중·말기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소식을 뜯고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나는 아빠가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해 보였다.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단련하는



신기한 효과는 논쟁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파룬따파의 진실을 똑똑히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매우 후회되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중공의 운동을 겪은 아빠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꼬일 대로 꼬여 있어 나에게 파룬궁이란 말도 못 하게 했다. 그는 차라리 중공 언론의 거짓말을 믿으며 딸에게 이른 바 “평안”을 얻게 할지언정 딸이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심신의 큰 변화를 외면하였다. 착한 아빠는 올바른 것과 사악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 그의 소망은 바로 온 가족이 “평안”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이 닥쳤을 때 아빠는 자신의 “평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반드시 아빠에게 상세하게 파룬따파의 진실을 알려주고 그에게 불법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나에게도 아빠에게도 가장 큰 유감일 것이다.

그동안 나는 거의 매일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족들에게 먼저 이제는 파룬궁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승낙했고, 아빠도 나에게 사과했다. 아빠는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멀리 타국에 있는 딸이라고 말했다. 아빠는 67세이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나는 “진선인”의 법리에서 파생된 일부 이치를 그에게 들려주면서 아빠에게 일에 부닥치면



미국 파룬궁 수련생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오스트레일리아 파룬궁 수련생 단체 연공



프랑스 파룬궁 수련생 파리 인권 광장에서 연공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 수도 오타와 국회 앞에 모였다



대만 파룬궁 수련생 자유 광장에서 연공

파룬따파 홍전 세계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고 하는데, 1992년 5월 리훙쯔 선생이 장춘에서부터 전해왔다. “진선인”의 원칙에 따르고, 보조적으로 다섯 세트의 동작이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이 있는 바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기이한 효과로 짧은 몇 년 사이에 신주(神州)의 대지에서 역에 달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아 도덕이 승화하고 몸이 건강해졌다. 현재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으며 여러 민족 사람들의 환영과 사랑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아빠에게 《전법륜》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정으로 병을 얻는 것은 정신이 7할이고 병이 3할이다.” “물질과 정신은 일성(一性)이다”고 말했다.

한번은 엄마가 네 아빠가 오늘 성나서 발끈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었다며 어린 간호사를 꾸짖었다.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시나요? “암”은 라틴어에서 계를 뜻하고, 계자리의 영문은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 다른 사람을 선의로 대하고, 많이 참으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은 일성이므로 아빠가 즐겁게 타인과 자신을 선의로 대하면 아빠의 세포 하나하나가 말을 잘 듣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흥겹게 아빠를 보호할 것입니다.

아빠는 말했다: “그래, 나는 게가 되지 않을 거야! 내 딸이 내 맥을 짚고 있

으니, 내가 조바심으로 매우 괴롭지만, 딸이 나에게 많이 참으라고 한 말이 생각나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고 읽으니 마음이 차분해 지었다.” 아빠는 더는 다른 사람과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빠의 정신이 유쾌하여지자 몸도 빨리 회복되었는데 의사는 이런 경우는 100명의 환자 중 하나도 있을 수 없다며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들에게 비결은 “진선인”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었다.

최근에, 중공 병독(우한 폐렴)이 기승을 부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빠가 병에 걸렸을 때와 같은 마음이 쓰린 아픔을 느꼈다! 나는 이 역병에 빠진 친지들에게 알리고 싶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믿고 또 성심껏 읽는다면 꼭 바이러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 아홉 글자의 길언은 생명을 구하는 법보(法寶)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묘수이다.



진심으로 일깨우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한의학에서는 마음의 평정을 매우 강조한다. 속담에도 있듯이, 인생은 (相由心生) 마음에서 태어나고, 상황은 마음에서 바뀐다고, 느닷없는 재앙 앞에 많은 사람은 초조, 공황, 분노,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정서는 비록 인지상정이지만, 자신이 화를 피하는 것을 돋지는 못 하며,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환경을 더욱더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최대한 이지적이고 냉정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겠는가? 가장 좋은 묘책은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읽는 것이다! 이 아홉 글자 길언(吉言)은 모두 우주에 있는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도와 믿음을 높이고 바른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인심이 선한 마음을 품고 온화하게 처신하게 한다. 많은 사람이 이 아홉 글자 길언이 기사회생의 뛰어난 위력을 직접 증명했는데 그건 정말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다!



생사의 고비를 넘다

나는 시골 여성으로 올해 65살이다. 2006년에, 나는 광동으로 일하러 갔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남편은 전통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시내의 음탕한 곳에 가서 에이즈에 걸렸는데 결국.....

에이즈에 걸리다

1년 동안 일을 한 후, 나는 집에 가서 손자를 데리고 있었다. 2008년에 몸에 문제가 생겼다: 나는 40대에 폐경이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유혈에 고름까지 흐르며 악취가 코를 찔렀다. 하신이 느닷 없이 가렵더니 엄지손가락만 한 뾰루지가 생겨나 긁혀서 피가 뚲뚝 떨어지고 간지러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매독이라고 했다.

나는 배가 불룩해졌는데 소화제를 한 줌씩 먹어도 여전히 부풀어 있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온몸이 나른하여 호미도 들 수 없었다. 여동생의 딸은 나를 데리고 지역 군대 병원에서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 에이즈로 나왔다! 세상에! 이건 매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군대 병원은 우리 호구가 있는 현급 병원에 통보했다. 현급 병원에서 전화로 나를 한 번 왔다 가라고 했는데, 의사는 나의 남편에게 에이즈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반드시 그를 데리고 가서 검사하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에이즈에 걸렸다.

원래 남편은 내가 집을 떠나 외지로 일하러 간 동안 도덕을 지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음탕한 곳에서 에이즈에 걸린 것이다. 나는 뜻밖의 날벼락을 맞았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의사는 이 병은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되어 오로지 약만 먹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약을 한 보따리씩 주었다. 약은 공짜로 먹는 것인데 내가 약을 먹은 지 꽤 오래되었어도 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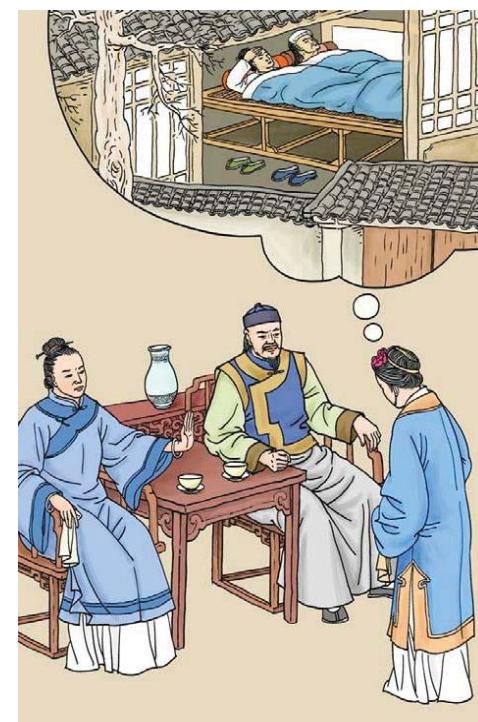
남편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초래하여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쳤다. 몇 년 동안 공짜 약을 먹었는데도 남편이 쓰러졌다. 마지막에 음식과 물도 먹을 수 없고 대소변을 가누지 못해 3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2015년 3월에 고통스럽게 세상을 떴다. 임종 전에 그는 뼈저리게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마을에 70세 된 여성도 에이즈에 걸려 집에 누워 있었는데 얼마 안 되어 이 여성도 죽었다.

이후의 나의 운명도 이와 같을 것이다. 누가 나를 보아도 얼굴은 붉고 안색은 검

재난 속의 인의

청나라 순치 갑오년 3월, 진릉이라는 곳에 고성이 부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머느리는 성이 전(錢)씨이다. 한번은 전씨가 이웃 마을의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고성이 사는 마을에 역병이 일어났는데 도처에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 친척조차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감히 방문하지 못했다. 불행히도 고성 부부도 이런 역병에 걸렸으며 얼마 안 있어 아들, 머느리 등 여덟 명이 모두 잇따라 병에 걸려 온종일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생명이 위독했다.

전씨는 시댁에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초조하여 다급히 시댁으로 돌아가 뒷바라지를 하려 했지만, 부모님이 극력 반대하였다. 전씨는 양친에게 말했다: “남편이 아내를 들이는 것은 원래 시부모 친인의 생사 대시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부모님이 모두 쓰러져 있는데 내가 차마 돌아가 문병하지 않는 것은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나는 반드시 돌아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데 죽는다 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말을 마치자 전씨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대낮에 고성의 가족은 귀신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신이 이 효부 전씨를 감싸고 오고 있는데 우리 빨리 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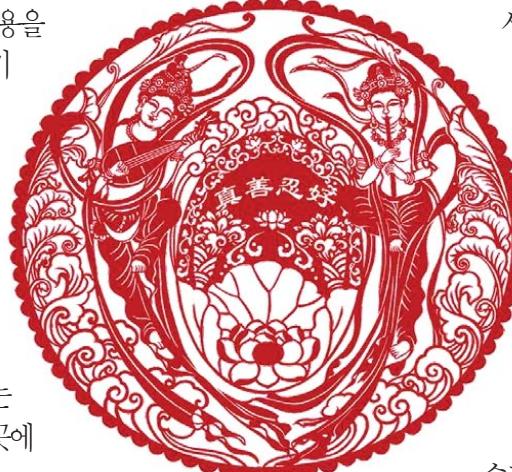
전씨는 시댁에 돌아가 기족들을 정성껏 보살폈는데 그로 인해 여덟 명의 가족이 서서히 완쾌되어 모두가 목숨을 살렸다.

흉포한 대역병 속에서 전씨는 타인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생사를 도외시하였는데 그 결과 뜻밖에도 전염병이 몸에 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해내어 사람들이 기적이라며 칭송했다.

누나는 나에게 꼭 진심으로 배우라고 재삼 당부하면서 이것은 너의 연분이므로,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누나도 “꼭 진심으로 배워야 하는데 사부님만이 너의 병을 책임질 수 있단다. 나는 몸소 체득하였다.” 둘째 누나도 파룬궁을 수련한다.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의 침뜻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는

法轮大法好



곳마다 남을 잘 대하고, 장사할 때는 성실과 신용을 중시하고 모순이 생기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고초를 이해하였다. 현묘하게도 그때마다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렸는데 정말로 “막다른 곳에 서도 길이 열렸다.”

얼마 안 있어,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다——나의 위가 정상이라 아무 일도 없었다! 리훙쓰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나와 사부님의 인연이 닿아 사부님께서 법의 힘으로 나를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하나의 좋은 사람으로, 높은 경지의 생명이 되라고 이끌어주셨다. 나와 아내는 감동해서 울었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사스가 있던 해에 딸이 고열이 났는데 며칠 동안 고열이 내리지 않고 43도까지 올랐다. 우

리 부부는 겁에 질려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누나와 둘째 누나 둘만 전염을 두려워 하지 않기에 자전거를 타고 딸을 보러 왔다. 우리더러 《전법륜》을 딸에게 읽어주라고 했다. 반나절만 공부했는데 딸의 고열이 가라앉아 기뻐 날뛰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나들도 법의 힘이 있지 않을까? 사부님께서 그 두 사람을 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사부님은 줄곧 우리 곁에 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중공이 파룬따파에 대한 지속해서 20년 가까이 피비린내 나는 비바람 박해 속에 나와 아내는 이런 식으로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어찌 우

리뿐이랴,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닿은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파룬따파와 인연을 맺었다. 나는 사부님께서 항상 우리를 간호하면서 제자의 입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말로도 생명을 구해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사부님 대법의 빛이 우리 대가족을 비추어 주셨는데 어떤 감사의 말도 사부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福

은 재와 같고, 등이 굽어 있고, 게다가 절름발이기에, 누구나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법을 만나다

2015년 10월, 나는 손목이 골절되어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사촌 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보고 나에게 간절히 말했다: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고 읽어요, 이 아홉 글자는 위력이 무한해요.” 예전에도 사촌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 나는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심성의껏 읽기 시작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며칠 안 돼서 손이 진짜 안 아팠다. 나는 너무 설렜다. 파룬궁은 정말 신기한데 이 아홉 글자만 읽고 나았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파룬궁을 수련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나는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전법륜》



(파룬궁의 주요 저작)을 공부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 류머티즘은 나았고, 두 다리가 아픈 증상이 사라져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고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수록 안정되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그런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던 에이즈 증상이 현저히 경감되었고 나중엔 점점 약해졌다.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다

《전법륜》을 배우면서 나는 파룬따파 수련은 덕을 중요시해야 하고, 도덕이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순에 부닥치면 우선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고, 참아야 하며, 곳곳에서 타인을 위해 생각해야 한다는 등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주 좋다는 생각에 기꺼이 파룬따파의 요구에 따라 수련하려고 했다.

예전에 나는 며느리를 아주 원망했는데 내가 중병으로 앓으며 어렵게 이 집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병고를 참으며 열심히 일해도 며느리는 나를 무시하면서 온종일 육지거리를 했다. 그녀가 나

에게 한 그 나쁜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늘 마음에 걸렸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그녀가 아무리 육을 해도, 공정하지 않게 대해도, 나는 모두 그녀를 너그럽게 봐주고, 그녀를 선의로 대하여, 원망도 미워도 하지 않았다. 파룬따파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을 옮겨 갔기에 지

금 내 마음은 활짝 열려있는 즐거움으로 행복하다.

의사는 나에게 에이즈가 있으 면 낫은 보험을 들 수 있는 수속 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진 선인”을 수련하기에 “진”을 행해야 하므로 나는 지금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일할 능력이 있는데 무슨 낫은 보험을 향수하겠는가? 나는 이익심을 내 려놓고 의사의 호의를 사양했다.

몸을 정화하다

리홍쓰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心性(천성)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에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心性(천성)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상 물질에 보증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약 1년간 수련을 했는데 심성이 제고되면서 나의 몸도 많이 변했다. 사부님께서는 더 큰 병업을 내 몸의 심층에서 밖으로 밀어냈다. 하루는 나의 앞가슴, 아랫배, 허벅지, 종아리, 양팔에 큼직한 혈반이 나타났는데 청홍 자지 빛으로 온 몸에 크고 작은 딱딱한 뾰루지가 생겨 간지럽고도 아팠다. 나는 사부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조절하고 있으며, 몸을 더 정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마음이 안정되었다. 약 일주일 동안 이것들은 모두 사라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부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 나의 몸을 조절해 주셨는데 증상이 번마다 나아졌다.

생사의 고비를 넘다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얼마 되지 않아 에이즈 임상 증상이 내 몸에서 사라졌는데 몸의 변화를 나는 분명

히 실감했으며 온몸에 활력이 넘치 어 밥을 같고, 심고 거름을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는데 무엇을 하든 힘겹지 않았다. 나는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달게 먹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았다. 사촌 언니의 딸은 나의 이렇게 큰 변화를 보고 놀라 하면서 엄마에게 물었다: “셋째 외숙모는 어떻게 나으셨나요?” 사촌

언니가 말했다: “그것은 파룬따파의 신기한 위력이다!”

나는 위생원의 통지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갔다. 난 이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2018년 12월에, 나는 병원에서 HIV 검사를 했는데 (인체에 인간 면역결합 바이러스에 감염 여부 검사). HIV 검사 결과 “인간 면역결합 바이러스 항체” 결과는 “무반응”이며, 참고치도 무반응이다. 아! 에이즈가 나았어! 내가 드디어 귀신의 문턱을 넘어섰다!

나는 이 결과를 미리 알았으나, 화학 검사표를 받았을 때 나는 그래도 너무 설렜는데 이 놀라운 측정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했고 지금까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약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이 오로지 수련을 꾸준히 하고서 생각지도 못한 건강을 얻었고 에이즈가 내 몸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파룬따파의 위대하고, 파룬따파 사부님의 자비로움이다! 그것 역시 수련

누나가 뛰어나와 문을 열고 즐겁게 우리를 방으로 맞이하였다. 나는 앉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누나는 따뜻하게 우리를 대접했는데 뜨끈뜨끈한 쪽쪽을 가져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다.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마침 둘째 누나도 왔는데 내가 나가서 둘째 누나를 맞이하자 둘째 누나가 물었다: “너 아침 일찍 웬일로 여기에 와 있으느냐?”

나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일이 생겼는데 큰일이 생겼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위에 혹이 생겼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와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인지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 누나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누나는 차분하게 일단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나는 먹을 수 없었는데 마치 생이별하듯이 말했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내, 아이, 연로한 아버지, 어머니는 어쩌면 좋아요!” 누나는 싱그레 웃으며 말도 하지 않고 고개

를 숙이고 밥을 먹었고, 둘째 누나는 듣고 계속 울었고, 아내도 울었는데, 나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다.

어느새 밥을 다 먹고 누나는 우리 모두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며 우리 앞에 앉았다.

“나한테 온 것은 무슨 뜻이야? 말해 보아라!” 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누나가 뵈주세요.” 누나는 키득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결코 병을 치료하지 않는데 리홍쓰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만약 병을 낫게 하고 난(難)을 제거하며 소업(消業)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련하고, 반본귀진(返本歸真)해야 하는데, 이것을 각종 수련 중에서는 모두 이렇게 본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가 파룬따파를 배우거라.”

나는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으로 배우고 싶지만, 누군가 가르쳐 주어야 하지요. 우리는 누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 나더러 누나를 찾아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누나가 꼭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한쪽에서 “정말이에요, 그 점쟁이가 우리에게 누나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럼, 너희들은 오늘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전법륜》을 가져다 두 사람이 함께 배우거라.” 책은 우리에게 있고 또 보고 있다고 나는 말했다. 누나는 열심히 배우면 사부님께서 꼭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운명이야!” 누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했다.



누나는 나에게 보서를 주었다

문/후이즈(慧智)

우리 누나 혜신은 이미 여러 해 동안 파룬따파를 수련했는데 나도 대법이 좋은 것을 알며 누나가 수련한 후의 커다란 변화도 알지만, 중공의 박해로 나는 두려워서 수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몰래 줄곧 혜신 누나를 보호해왔고 생활상에서도 계속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싶어 매년 큰 절에 가서 신과 부처님에게 자신과 온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13일, 나는 갑자기 위가 심하게 아파 났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위에 무엇이 생겼는데 불치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말 날벼락이었다! 온 집안 식구가 모두 명해졌고 아내는 계속 울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일가족 사람을 어찌하겠는가? 늙으신 부모님은 누가 돌보겠는가? 1남 1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내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제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좀 봐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야 한다면 누구도 못 붙잡는데, 이것이 운명일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와 아내는 모두 낙심하여 마음이 매우 침통했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게다가 건물을 사고 경영을 크게 할 참이었는데 망했어! 죄다 망했어!

아내는 나에게 권했다: 점쟁이를 찾아가

서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봐요. 그래서 우리 둘은 같이 점 보러 갔다. 결국 절의 사람과 똑같이 말했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한마디 했다; “당신 집에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로지 그녀가 고칠 수 있어요.”

나와 아내는 생각했는데 그가 누구일까? 잠시 후 우리 둘은 이구동성으로 밀했다: “반드시 누나일 거야, 갑시다, 어서 그녀를 찾아갑시다!”

나는 운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점쟁이가 한 말이 생각나서 속으로 생각했다. 누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 누나가 몇 년간 파룬궁을 수련했는데 설마 역시 신의(神醫)로 되었을까? 그녀도 이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역시 그런 신통으로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처럼 그럴까…… 누나가 나의 일에 신경을 쓸까?

누나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나는 계속 그녀가 포기하기를 바라며 그녀와 몇 번이고 갈등이 생겼었는데 만약 누나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병을 고쳐줄까? 이전에 누나를 보러 갈 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삼퇴”(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하라고 권했는데, 매번 나는 화가 나서 그녀의 집을 떠났다. 오늘 그녀에게 부탁하러 가는데, 어떻게 입을 열까? 마음속에 자신이 없으니 마음이 두근거리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집으로 갔다. 누나에게 선물을 사줄 격률도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자의 도덕이 향상된 수련의 성과이기도 하다.

전통으로 되돌아가다

에이즈는 중국의 국가적 재난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 유엔 에이즈 계획서, 세계위생조직 연합보고서 추계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중국에서 에이즈 감염자는 약 125만 명이다.

중국 공산당이 폭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아래로, 그 목적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망치므로 하여 사회 도덕의 붕괴를 초래했다. 고대 성인 선현들은 대대로 인간으로

의 도덕 준칙을 답습하고 있었는데 “만약의 첫 번째는 음란” 이므로 남녀 간의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인륜을 해치고 수치를 모르는 행위로 간주했다. 에이즈는 현대 과학기술의 수단에 의해 치료될 수 없으며 오로지 전통으로 돌아가, 도덕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희망이다.

파룬따파는 생명을 되돌아가게 하는 하늘의 법이다. 파룬따파는 무수한 나 같이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었다. 나의 동포들이 빨리 파룬궁 진실을 잘 이해하고 중공의 거짓말을 믿지 말며 다시는 기회와 인연을 잊지 말고 미망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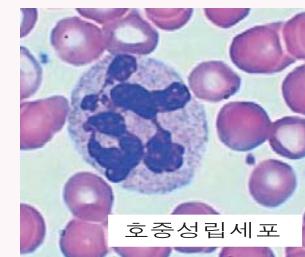
의학 연구

◀파룬궁 수련이 면역 체계를 이중으로 조절▶

미국 연구원들은 파룬궁 수련자의 입 세포 중 일련의 면역 관련 유전자 활성이 모두 제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인터페론-γ 과 일부 관련 유전자가 연공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현저히 많이 향상되었다. 수련자의 “입 세포가 살상 세균을 삼키는 효율”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연구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파룬궁 수련자의 세포가 보여주는 “면역 이중 조절 기능”이다. 면역체계는 양날의 칼과 같이 그것은 병의 원인을 죽이고 유기체를 보호한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과도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써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힌다. 소개에 따르면 2003년 SARS(중국에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폭발했을 때, 다수의 사망한 환자들은 자신의 면역력으로 인한 폐 손상으로 죽었다고 한다.

반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의 “호중성 입 세포”는 염증 자극이 없을 때, 살아 있는 시간이 연공을 하지 않는 사람의 세포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데 게다가 “삼키는 기능” 역시 강하기에 기체 보호에 유리하고, 염증 인자가 있을 때는 세포자살을 급속히 함으로써 염증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났다. 이런 자체 “이중 조절 기능”은 과거 연구에 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연구는 2005년 2월의 현대 의학 분야 권위잡지에 발표되었다. 福



호중성 입 세포

육식 점 주인 생사기

문/옌스(言实)

연화가 와서 장사가 잘된다

류씨는 이전에 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했는데 개체 업이 유행하던 시절에 무급 휴직하고 나와서 스스로 육식 점을 꾸렸다. 처음에는 그와 마누라 둘이서 했다. 장사가 점점 좋아지자 손 철 틈도 없어 점원을 하나 고용해서 일을 도왔다.

그러나 좋은 점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보통 몇 달이면 점원을 바꿔야 했는데 고용한 사람은 계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계걸스럽고, 어떤 사람은 계으름도 피우고 계걸스럽기도 했고 게다가 늘 물건을 판 돈을 몰래 감추었다. 류씨는 늘 감탄했다: “인심이 나빠요, 지금 사람은 이익만 얻으려 하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니 이 사회는 끝장이네!” 그래서 류씨의 육식 가게는 일 년 내내 점원을 모집하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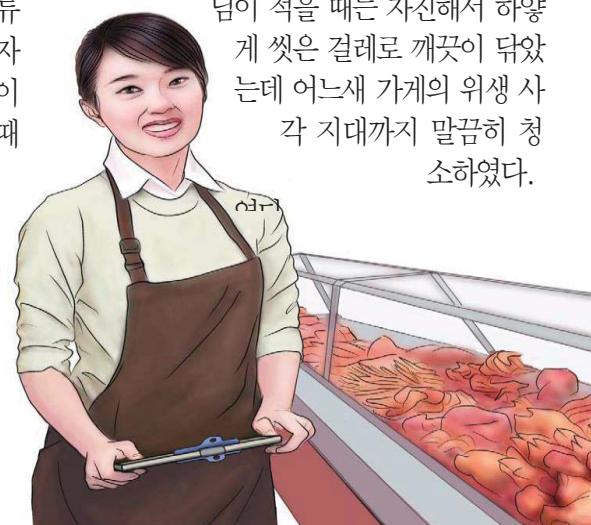
하루는 점원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 류씨의 마누라한테 몇 마디 꾸지람을 듣자 즉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버렸다. 추석이 다가오기에 장사가 잘되는 가장 바쁠 때였다. 화가 나오고 다급해진 류씨 부부는 지금의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남을 돌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원망했다.

바로 그들이 불평하는 사이에 한 아가씨가 가게로 와서 물었다: “점원을 모집 중이십니까? 어떤 요구인가요?” 류씨의 마누라는 처녀를 훑어보았다: 요즘 여자들처럼 노출되지 않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것이 보기만 해도 마음에

들자 급히 말했다: “모집합니다, 조건 없이 이걸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배우기 쉬우니 내가 10분 만에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처녀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이 노임 대우를 말하자 처녀는 흥정도 하지 않고 손을 씻고서 아까 가벼린 점원이 팽개치고 간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다.

류씨 부부는 이 연화라고 부르는 아가씨는 일처리가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평범하게 생겼지만 웃는 얼굴을 보면 그냥 즐거웠다. 이상하게도 연화가 온 이후로 가게는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다. 육식 점에서는 식사를 도맡아 하는데 류씨 부부는 늘 팔고 남은 냉채거나 채소 지스러기를 반찬으로 삼았다. 뻔뻔스러운 남자 점원이라면 류씨에게 “좋은 고기를 한 접시 먹자”고 요구할 것이다.

연화는 달리 좋대로 고르지 않았다. 손님이 적을 때는 자진해서 하얗게 씻은 걸레로 깨끗이 닦았는데 어느새 가게의 위생 사각 지대까지 말끔히 청소하였다.



는 손발이 뜨거워지고, 밤에는 이불도 덮지 못할 정도로 더웠다. 한 달도 안 되어 내 병은 다 나았고, 예전에 납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다리가 가벼워져 걸음도 신바람이 났고, 누렇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는데 신경이 마비로 부은 느낌도 없었고, 찬 것을 먹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았다. 병이 없어 몸이 가볍다——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온 나에게는 그야말로 천일 야화 같았고, 게다가 돈 한 푼도 안 들었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다.

파룬따파는 성명 쌍수의 공법으로서 사람에게 도덕을 다시 상승하고 사상적으로 생명의 본원으로 되돌아가서 몸을 정화하기도 하여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무병 상태로 만들어 아주 젊어 보이게 한다. 나의 얼굴은 더는 붓고 마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위축된 부위도 점차 회복되어, 얼굴은 점점 예뻐졌는데 어릴 적 귀엽고 청순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특히 맑고 밝은 큰 눈은 항상 깨끗하고 순수했다. 모르는 사람은 모두 나를 20대 초반의 90년대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며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나의 기질이 틸속했다고 하였다. 사실 나는 36살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병마에 시달렸고, 얼굴에 심한 신경 장애로 인해서 변형된 병 단지였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파룬따파가 나에게 심신의 새로운 삶을 얻게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 신화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덕을 본 수천 수만 명이 이 하나하나의 진실한 인간 신화를 확인하였다. 福



기이한 책

《전법륜》은 파룬궁의 주요 저작이다. 《전법륜》이 책의 이름은 많은 중국인에게는 아마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1995년 1월, 《전법륜》이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의 환영을 받고, 중국에서 1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였다. 1996년, 《전법륜》은 《북경일보》와 같은 신문에 의해 연도 10 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999년 7월 이후, 파룬궁이 중국에서 중공의 온갖 박해,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전법륜》이 책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공개 출판하였는데 40여 종의 부동한 언어 문자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문 서적이이다. 《전법륜》은 만고의 기서라고 불리는데 인류의 끈질긴 추구에도 이해 못했던 우주, 인생의 미혹을 풀어냈고, 수많은 현대의학이 속수무책이던 난치병 환자의 질병을 없애버렸고, 전 세계 억 명의 사람들에게 심신 혜택을 주어 도덕을 다시 상승하였다. 福

씀하셨다: “사람이 반본귀진하려는 이것이 야말로 사람이 된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불성(佛性)이 나왔다고 본다. 이 일념(一念)이 가장 진귀하다. 왜냐하면 그가 반본귀진하려 하고, 속인 이 충차 중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우주 중에는, 불가(佛家)의 말에 의하면, 속인 중의 일은 모두 인연(因緣) 관계가 있어서, 속인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존재한다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예전에 나쁜 일을 하여 생긴 업력(業力) 때문에 병이나 마난(魔難)이 조성된다. 고통을 겪음은 바로 업력의 빚을 갚는 것이다.”

나는 마침내 마음속에 쌓인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울분을 내려놓았다. 줄곧 끄집어내기 힘들었던 슬픈 옛일들이 서서히 풀리었는데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해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빚진 업을 갚는 것이니, 모든 것은 인연 관계가 있으므로 인생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어

려움과 불공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생의 의의는 반본 귀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럼 못 놓을 게 뭐가 있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우주의 真(전) · 善(싼) · 忍(란), 이 특성에 순응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사람이고, 이 특성에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은 진정 나쁜 사람이다.” 나도 무엇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남을 위하고, 남의 결점과 무리를 너그럽게 봐주고 참아야 하고, 남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이다. 파룬따파의 요구와 비교해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보답을 요구했고,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자기를 해쳐서는 안 되는 이것은 진정한 좋은 사람이 아니므로 일단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내 몸과 마음은 한결 홀가분하고 열반한 듯이 되살아났다.

심신 정화 청춘의 묘령

더욱 신기한 것은 책을 읽는 데 너무 열중하여 나는 정해 놓은 시간에 약을 쓰는 것을 잊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니 몸이 편하고 잠도 잘 잤다. 원래는 추운 것이 무섭고, 바람이 무서웠지만, 그때는 11월 초겨울, 난방이 없는데도 나

단골손님이 연화의 서비스가 좋다고 칭찬하자, 류씨 마누라가 말했다: “나중에 며느릿감을 얻으려면 연화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연화는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줌마 고마워요, 저는 결혼했으며 심지어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요.” 류씨 마누라는 연거푸 말하기를 얼굴과 몸매를 보면 그래도 아가씨네요. 34살인데 보면 25살 정도로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은 후, 류씨 부부는 또 연화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류씨 마누라가 똑똑히 말했다: “어머나, 그때 급히 사람을 쓰려고 하다 보니 그녀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우릴 속이지 않겠지요?” 류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뭘 속이겠나요? 그녀는 매일 우리가 보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 돈과 물건이 종래로 빠진 적 없어요. 이 여려 해 동안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과 왕래하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성실하고 손버릇이 깨끗해요.”라고 말했다.

거짓말을 쉽게 믿어 연화를 해고

시간이 흘러 연화는 벌써 2년 넘게 류씨의 가게에서 일했다. 이 2년 남짓한 사이 류씨의 가게는 흥성했고, 류씨의 마누라는 갱년기에 접어들어 일은 적게 하지만 성깔도 보통이 아니었다. 연화는 혼자서 두 사람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즐거운 모습이었다. 류씨 마누라는 연화에게 월급을 올려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설에는 각종 익힌 음식을 주머니에 넣어 연화에게 설맞이 물품으로 가져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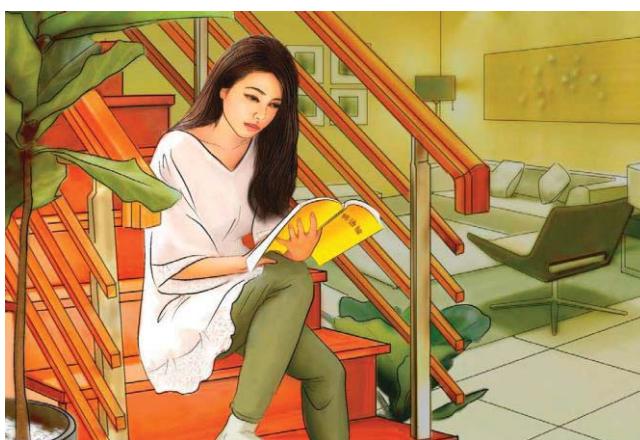
어느 날 연화는 파룬궁 진상 소책자 한 권을 가져와 류씨 부부에게 보라고 주면

서 하늘이 중공을 멀하려 하니 어서 빨리 “삼퇴” (중공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를 하라고 알려주었다. 이번에야말로 류씨부부를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공산당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하다는 것을 주입 당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서 권세를 틀어쥐고 있는 정부를 견드리지 못하므로 자신의 작은 살림을 잘 꾸려가는 것이 실속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어렸을 때 문화대혁명의 비판 대회에서 사람을 때리는 잔인함을 본 적이 있고, 공산당이 사람을 얼마나 독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해 깊은 공포심이 있었다.

류씨 부부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간에 TV에서 매일 파룬궁의 일을 방송했던 것이 생각났으며, 또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감옥에 붙잡혀 가고 재산을 차압당한 등등을 들어 본 적이 있기에 놀라서 부랴부랴 연화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다?

연화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파룬궁 수련생입니다. 우리 엄마는 일년 내내 병으로 앓고 있었으므로 가족이 연루되어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엄마의 간 복수가 단번에 나았어요. 대법사부님께서 우리 엄마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으며 나는 박해로 인해 이 도시로 오게 되었어요....”

류씨 부부는 놀라고 또 무서워서, 연화를 말 못하게 했다. 다음날, 평계를 대고 연화를 해고했다. 연화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류씨는 거칠게 연화의 말을 중단시키고는 그녀에게 빨리 가라고 했다. 연화가 떠날 무렵에 말했다. “아저씨 아주 머니, 지금 인연은 아직 안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하루빨리 삼퇴하고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연화는 갈아입은 작업복을 깨끗하게 빨고, 웃으면서 류씨 부부를 떠났다.

연화가 간 후, 류씨 가게에 또 새로운 점원이 찾아왔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류씨 부부는 항상 말했다. 연화 같은 점원은 찾을 수가 없네요, 만약 국가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을 불들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녀를 점원으로 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류씨 부부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가게의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인데 이건 한 면으로는 가게가 원래보다 청결하지 못하고, 새 점원의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은 것, 다른 원인은 연화가 그들에게 재운을 가져다주었다고 류씨 부부는 인정했다. 그들은 연화를 해고한 것을 매우 후회했다.

장사가 잘 안 되자 류씨 부부는 점원을 해고했다.

폐암 진단을 받고 온 가족 절망

류씨는 감기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져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만 했다.

병원에 가서 몇천 위안을 들여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는 류씨의 마누라를 따로 사무실로 불러놓고, 류씨는 감기가 아니라 폐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류씨 아내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아들이 아직 연구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 비록 저금이 있지만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하는가?

류씨는 아내가 울면서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심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줘요, 나는 18살에 고기 가공 처리 공장에 들어가 돼지도 감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게다가 집에 적어도 50만이 있고, 또 의료 보험도 있으니 암이라도 치료할 수 있어요.” 아내가 더 크게 우는 것을 보자, 그는 일부러 한 마디 덧붙였다: “그래도 돈을 믿어야 해요” 아내를 놀리려고 했는데, 아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다: “10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의사는 폐를 바꿔야 하는데 바꿔도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어요!”

이번엔 류씨는 풀이 죽었다. 그는 도무지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류씨 마누라가 의사한테 뇌물 돈 봉투를 주었더니 그날 바로 입원했다. 류씨는 몸에 여러 개 관을 꽂고 있었으나 가슴은 여전히 헌 솜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았다.

밤에 류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혁혁거리며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릴 때부터 엄미는 나를 명이 크다고 하셨는데 1960년, 전국 곳곳에서 사람이 굽어 죽던 그 해 내가 태어났고 남의 집은 사람이 죽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이를 낳았다. 태어나서 젖이 없어 고구마죽을 먹었는데 검고도 건강하게 자랐다. 학교 다닐 때, 문화대혁명 시기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막 18살이 되자마자 때마침 일군을 모집하여 고기 가공 처리 공장에 들어간 후, 달마다 개근하고, 해마다 모범이 되었고, 병가를 낸 적이 한

완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적이 없다.

우울증에 걸려 설상가상

나는 연구생을 졸업하고 유명 금융기관에 입사해 일하게 되었는데 나는 여러 해 동안 낭비해 온 청춘을 모두 일에 바쳤다. 나는 자신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기에 부모님과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잘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금융 분야는 완전히 권세와 이익만 쫓아다녔는데 이익을 앞세우는 모든 가치관, 아귀다툼하는 작업 환경, 그리고 높은 부하의 작업량은 나의 정신과 몸을 매우 피곤하게 했다.

나는 인생의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



만, 설마 내 거니 네 거니 서로 빼앗고,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 결국 성공하여 유명해지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은 내가 내심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매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현실에서 좋은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고, 방황하고, 초조하고, 마음속에 맷린 울분이 나를 아직을 선택하게 했다. 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너

무 힘들어서 인생의 방향이 없었다.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

담을 넘어 찾다가 다행히 대법을 얻다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담을 넘어 인터넷에 연결하였으므로 파룬따파 진상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깊은 사색에 잠겼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인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확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물욕이 넘치고, 모든 것이 돈을 바라보는 이 사회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 진인하게 생체에서 장기를 떼어도 개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진리일 것이다.

나는 공교롭게도 전자책을 다운로드한 바 있었는데 그 속에 파룬따파 서적이 있었지만, 줄곧 보지 않았다. 이때 나는 《전법륜》에서 도대체 무엇을 썼는가를 매우 보고 싶었으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견지하고 있을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줄기 강력한 흡인력이 내가 이 책을 펼치게 하는 것을 느꼈다.

《전법륜》을 펼쳐서부터 나는 더는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마치 전기 플러그가 통하듯이 글자마다 마음에 와닿았고 구구절절 이치에 맞았다. 나는 마침내 인생의 진리를 찾았는데 다년간 애탏게 찾았던 인생의 의의를 모두 책에서 답을 찾았다. 이것은 진정한 불법이다! 2010년 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는 피비린내 나는 비바람 속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진리가 뚜렷하고 심신이 구원되다

리훙쯔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말



가없는 여정의 끝은 맑은 청류

문/현전(尋真)

나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 연구생이며 2010년에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대법은 나의 마음과 몸을 정화해 주었고 나를 혼탁한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인생의 귀로를 찾게 하였다.

명의 찾아 기나긴 노정 쓰라린 눈물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일종의 세계적 난치병인 “감각신경장애”, 게다가 경한 근육 위축병을 앓았었는데 이런 병은 후기에 신경 괴사로 인해 근육이 크게 위축돼 죽어 가기에 병든 부위의 심한 변형을 초래한다.

내 병세는 점점 심각해지고,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연 뭉치를 달고 있듯이 걸음이 무거웠으며, 얼굴이 붓고 변형되고, 두통으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약간의 바람도 견디기 어려웠다. 병이 생겨서부터 샌들 신고 치마를 입은 적이 없고 찬 음료를 먹어본 적이 없으며 이를 닦는 것조차도 반드시 뜨거운 물로 해야 했다. 그리고 위염, 장염, 골다공증, 중이염으로 전

신에 좋은 부품이 거의 없었다.

천천히, 내 얼굴은 심하게 변형되었는데, 부모님이 보고 슬퍼하실까 봐 걱정되어 나는 3년 동안 집에 안 갔다.

섣달그믐 날, 눈물로 라면을 먹으며 학교 기숙사에서 외로이 지냈다. 때로는 환부에 바르는 냄새가 심해 자습실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고. 병 때문에 기숙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으며. 길을 가다가 머리칼이 삭발 된 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조소도 당했다……

한 어린 처녀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 외지에서 공부하며 학업의 압력을 제외하고도 홀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했는데 인간 세상의 냉난함과 슬픔을 다 맛보았다. 그 속의 힘들고 쓰라림을 오로지 자신만 직접 느낄 수 있다. 나의 20대 최고의 청춘 시절은 모두 크고 작은 병원을 누볐다.

병고의 시달림, 명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과정의 차별 대우, 약 사기꾼의 속임수는 나에게 인생에 대해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했다. 나는 자신의 병에 대해 지금까지

변도 없었다. 혼자 장사를 한 후,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했는데 여러 해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멀쩡한 사람이 어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류씨는 자신이 너무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참 아주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목숨을 앗아가는 암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또 아직 반년이 지나야 연구생을 졸업할 아들을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 아들을 얼마 도와줄 수도 없네. 게다가 옆에서 온종일 고생하며 병간호를 하는 아내를 보니 지금 바로 방석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데 눈가에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반평생을 살아온 아내를 갑자기 홀로 남기는 것이 서운했다. “나는 아직 60도 안 되는데 죽고 싶지 않다.” 죽는다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류씨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어느새 흘러 입으로 들어갔

는데 쓰리고도 짰다. 이것은 그가 홀로 있던 어머니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울고 있는데 그들의 아들이 돌아왔다. 전화를 받고 효성스러운 아들은 그날 저녁 바로 밤차를 타고 돌아왔다……

류씨의 병은 치료할수록 심해졌다. 더는 누워서 잘 수 없었다. 의사는 류씨의 병은 이미 중 말기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류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아내에게 사람과 재산을 모두 잊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집을 팔아서 그에게 병을 치료하지 말라고 말했다.

진상을 듣고 갑자기 깨닫다

궁지에 빠져 있을 때, 다행히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의 동창생이 병원으로 류씨를 보러왔다. 동창생이 류씨에게 영양품을 가져다주고 또 그들에게 국제상에서 발생한 새로운 일들을 말해주었다: 공산당은 거의 끝장이니 전 세계적인 탈당 고조가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고, 3억 명 이상이 ‘삼퇴’를 했어요. ‘삼퇴’ 하여 공산당의 혼적을 지워야 신불의 보우를 받을 수 있고 오로지 신선만이 기사회생할 수 있어요.

류씨는 들으면서 높은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놀랐다.

동창생은 그에게 외국의 많은 과학자는 모두 신을 믿는데 그것은 그들의 연구가 무신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모두 파룬궁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



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음으로 하여 많은 암에 걸린 사람이 모두 연공하고 나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정부는 대법과 대법 사부님께 매우 높은 영예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류씨는 골똘히 듣고 있었는데 몸이 아픈 것마저 잊었다. 그는 자신이 왕래했던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부지런하고 착한 연화를 떠올리고, 예전에 3일 되는 데자 귀를 사 가던 남자를 떠올리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누라도 그러는 데 당신도 당원, 단원에서 탈퇴하세요, 나는 탈퇴하고 나서 허리가 아픈 옛 병이 다시 범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신이 고기 가공 공장에 있을 때 괜히 적극적이여 그것에가입해 돈을 떼이고, 지금 당신은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것임을 알았으므로 정말 재물을 탐내고 사람을 죽이니 빨리 탈퇴하세요. 류씨는 큰 소리로 말했다: “탈퇴할 거야! 이 공산당은 거의 사람을 죽일 지경인데 나는 그것을 따라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겠다!”

류씨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병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듣고서 나쁜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다. 류씨는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이 두려운 것 없으니 들으라고 해요, 나는 기어코 파룬파파는 좋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본 공산당은 모두 탐관오리이고 파룬궁은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공산당의 탐관오리는 특하면 투신자살하는데 자신을 사고라고 말하지 않고 파룬궁을 모욕합니다. 돈을 믿어도 소용없으며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는데 신선이 당신을 살라고 하면 살고 염라대

왕이 당신을 죽으면 죽어야 하니 아무도 어쩔 수 없어요.”

류씨는 물 한 모금 마이고는 계속 말했다: “여후, 정부가 상관하지 않으면 나도 연공 할 거야.” 그는 생각하고 또 말했다: “그것이 상관하겠으면 하고 나는 나의 연공을 하면 되지요. 인간은 살아야 하니 그런 귀신 같은 소리는 듣지 않겠네.”

류씨는 흥분하여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는데 피곤하다며 잠이 들었다. 그는 아내의 울음소리에 깨어났는데, 아내가 처참하게 우는 것을 보고 다그쳐 물었다: “내가 죽었나요? 어떻게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아내는 울고 웃으면서 침대를 내리치며: “당신은 죽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어요. 당신이 3시간 넘게 잠들고 있어 의사 찾았더니 당신이 그냥 잠들었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깨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병에 걸린 후 한 시간도 못 자고 힘들어 깨어났어요…… 당신이 깨어났으니 됐어요.”

대법을 수련하고 고생 끝에 나이 오다

류씨는 퇴원하기로 했는데, 치료할 돈이 없고 더군다나 그는 계속 입원해 있어도 호전이 없고, 그는 병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류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파룬궁을 수련하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 가서 가르칠 사람을 구할까? 마누라 말로는 연화가 가기 전의 핸드폰 번호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데 번호를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류씨는 그녀에게 한번 쳐 보라고 했다.

마누라는 바로 연화에게 전화를 걸었는

데 연화의 낭랑한 웃음소리가 전해져 왔다: “아줌마, 건강하세요? 가게는 잘 되고 있나요?”

류씨 마누리가 얼른 말했다: “연화야, 아저씨가 그 당시에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류씨는 전화를 받아 쥐고는: “아저씨가 미안하네, 너에게 사죄한다.” 고 말했다.

연화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류씨 마누리가 연화에게 물었다: “아저씨가 지금 아파서 그는 너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괜찮겠나?”

연화가 말했다: “아줌마, 아저씨에게 잘 요양하라고 말씀드려주세요. 나는 지금 고향에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에 나는 외지로 일하러 갈 수 없으니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류씨 마누리는 황급히 말했다: “가게에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저씨가 말하기를 그는 돈을 믿지 않으니 너에게 그의 목숨을 구해달래. 아저씨가 큰 병에 걸렸어.”

연화는 얼른 와서 류씨에게 연공 동작을 가르쳤고, 또 그를 도와 《전법론》책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류씨에게 파룬따파는 우주 대법이며, 연공은 심성을 중히 여기는데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정말 파룬따파의 요구에 따라 한다면 사부님께서 몸을 청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류씨는 말했다: “그래, 좋은 사람이 되며 더는 헛되이 살지 않을 것이다. 반평생을 살았는데 드디어 깨달았네.” 류씨는 단번에 환골탈태했는데 더는 돈벌이에만 전념하고 이기심에 시비를 두려워하던 류씨가 아니었다. 한동안 수련하고 류씨는 재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이상해, 종양이 없어졌는데 음영이 조금도 없어요. 보아하니 이 파룬궁은 뛰어난 것입니다.” 고 말했다.

현재 반년 넘게 폐업했던 류씨 집 육식점이 다시 문을 열었다. 류씨는 사람을 만나면: “대법 사부님께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더는 공산당이 날조를 믿지 말아요.”

류씨의 장사는 또 번창해져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2016년 6월 중순, 미국 임상 종양학회(ASCO) 공식 홈페이지에 파룬궁 수련이 밀기 암 환자의 생존기 연장 및 그 증상을 개선하거나 치유에 관한 논문 한 편을 발표했다. 그 연구에서: 파룬궁 수련은 암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완쾌되고 그들의 정신과 성격, 정서 까지도 바뀌었는데 문제를 더 긍정적으로 더 밝게 생각한다고 증명했다. ASCO 연차총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암, 종양 학술 연구의 의학 연회이다.

일찍 1998년,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동성의 의학계 전문가들이 3만여 명 파룬궁 수련생에게 5번의 의학 조사를 거쳐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율이 98%에 달한다고 증명했다. 

미국
임상
종양
학회
과학
논문
발표